

 미래창조과학부 http://www.msip.go.kr	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일시	2016. 7. 18.(월) 조간(온라인 7. 17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일시	2016. 7. 15.(금) 16:00	담당부서	미래성장전략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		
담당과장	정택렬 과장(02-2110-2090) 허원석 과장(02-2110-2950)	담당자	이찬영 사무관(02-2110-2093) 장서연 사무관(02-2110-2953)		

미래성장동력 표준선점 전략 추진

- '20년 표준특허 확보 세계4위권 목표 -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'미래부')는 7.15(금) 오후 3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**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**(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, 이하 특위)를 개최하여, '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'과 '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'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(참고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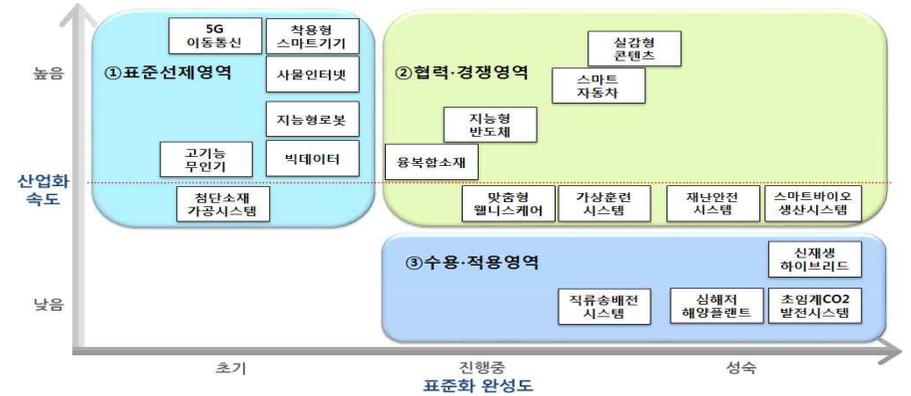
<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>

□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**핵심기술 표준화 전략**을 추진한다.(참고2)

○ 미래성장동력 분야(스마트카 등 19대 분야)의 기술역량, 산업화 속도, 표준화 현황 등을 진단하고 **수준별 맞춤형 표준화전략**을 마련하였다. 이번에 보고한 '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전략'에 따르면 2020년까지 **세계 4위권의 표준특허 확보 국가**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○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△ 선제적 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, △ 전략적 협력·경쟁을 통한 표준특허 획득, △ 국내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또는 틈새 표준화 추진 등의 영역으로 그룹핑하여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추진키로 했다.

<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표준화 전략 그룹핑 >



※ 분야별 산업화 속도 및 국제표준화 현황은 발전·진행되고 있어 각 분야의 해당 영역은 변화 가능

□ 관련 시장의 산업화 속도가 높으나 아직 표준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분야는 선제적 표준을 획득하기 위해 **유망기술* 표준특허 전략**을 구축하고, 연구개발(이하 'R&D') 과제 기획·선정 시 **표준개발과제 비중을 확대****하기로 했다.

* 5G(5세대)이동통신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실감형 콘텐츠 등

** 연구개발(R&D) 표준연계과제 신규비중 : ('15) 15% → ('20) 20%

○ 또한, 글로벌 시장과 협력·경쟁에 전략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전문가를 **100명 이상*** 확보하고, **글로벌 표준화에 적시 대응**할 수 있는 **미리포럼**을 육성('20년까지 9개 이상)한다.

* (ICT분야) 국제표준전문가 : ('16) 67명 → ('20) 100명

○ 표준화가 완성·성숙 단계에 진입한 분야의 경우에는 표준의 국내 적용을 촉진하고 **중소·중견기업이 표준특허**를 갖도록 밀착 지원('20년까지 표준강소기업 20개 이상육성)한다.

□ 특위위원인 **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**은 “미래성장동력 신시장 선점과 **표준특허 창출**을 위해서는 **질 좋은 R&D 과제**가 선정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 R&D과제의 **표준화 연계성**에 대해 정부의 깊은 관심을 당부하였다.

<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방향 >

- 아울러, 특위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'16년 추진현황을 **중간 점검**하고 하반기에 **중점 추진할 과제**에 대해 논의하였다.(참고3)
- 특위는 올해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(2015-2020)의 **중간단계**에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그간의 **기반구축* 모드**에서 **성과획득 모드**로 조속히 **전환**하고,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**추진체계도 효율화·내실화**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<그간의 주요 추진 내용(참고4)>

기술개발·상용화	·연간 약 1조원 의 정부 R&D 사업 을 통해 기술 개발 지원 ※ (5G) 초고속 근접통신, 소형셀 기지국 SW, (스마트자동차) 4채널 스캐닝리이다 핵심기술, 절대위치 50cm 수준의 자율주행 정밀지도 생성 SW 시작품, (실감형콘텐츠) 스크린 X (융복합소재) 유리섬유 복합소재 기반 플라스틱 COB 등
규제개선	·IoT, 드론 등 신기술·신산업 저해 규제 를 지속 발굴 (약 100여건) ※ 비면허대역 주파수 출력기준 개선(10~200mw),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및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의 Negative 전환 등 신기술 규제 개선
세계지원	·성장동력 R&D 세액공제 대상 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추가 ※ 스마트자동차, 고기능무인기, 융복합소재 등 관련 분야의 기술 10개 추가 ※ 대상 기술에 대해 R&D 투자액의 30%(중견·대기업 20%)를 세액공제
실증	·5G, 스마트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실증 지원 ※ 국내최초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연('15.11, 코엑스), 지하철 8호선에서 5G 시범서비스 시연('16.1) 등

□ 특위는 이를 위해 기업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**세계혜택, 규제개선, 정책금융지원**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,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**R&D, 실증, 표준화** 등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.

<주요 지원 계획>

기업참여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세계지원) 신성장동력 R&D 세액공제를 미래성장동력 등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, 세액공제 규모 확대* * 중소 30%,중견·대기업 20% → 최대 30% ◆ (규제개선)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등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, 지속적인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◆ (금융지원) 신산업·신기술 정책자금(80조원) 지원을 위한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정책금융 공급 확대
신기술 사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R&D)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산업화 진전 속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'17년 투자 확대 추진 ※ 국과심 '17년 주요 R&D 예산 배분 조정 결과(10대 분야) : '17년 10,836억원(18.7% ↑) ◆ (실증) 자율주행 실험도시(화성), IoT 실증단지(대구·부산), 무인기 전용 공역(고흥 등 5곳), 로봇 실증단지(광주·포항) 등 인프라 구축 추진 ◆ (표준화) '20년 미래성장동력 산업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'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' 마련·추진

○ 또한, 여러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**6개*** 분야에 대해 **협의회**를 구성하고, **간사부처**를 지정·운영하여 각 부처가 보다 **긴밀하게 협업**하고, **책임감** 있게 **계획**을 이행 할 수 있는 **환경**을 구축할 예정이다.

* 스마트자동차, 지능형반도체, 융복합소재, 착용형스마트기기, 맞춤형헬스케어, 고기능무인기

○ 더불어,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**일관성**을 가지고 **지속적으로 추진**될 수 있도록 **법적 근거 구체화** 등 **다양한 방안**을 검토하고, 미래성장동력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**행사***를 마련하여 **미래성장동력**에 대한 **공감대**를 **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챌린지퍼레이드 : 지능형로봇, 착용형스마트기기, 실감형콘텐츠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기술 시연, 국민 체험, 미래 변화상 구현 등으로 구성(11.27, 12.4/코엑스앞)

□ 이날 특위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“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그동안은 **도움닫기를 한 기간이었다**”며 “이제는 그 탄력을 이용하여 **구름판을 박차고 올라가야 할 시점이다**”라고 강조하며 **민간기업의 신산업 창출 활동을 뒷받침**하는데 정부의 **모든 역량을 집중할**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

○ 회의에 참여한 권세창 위원(한미약품 부사장)은 “**정부역할은 규제 등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걸가지를 치워주고, 세제혜택, R&D 등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** 제공하는데 있다”며 “그간 정부가 추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이찬영 사무관(☎ 02-2110-20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참고 1

제9회 「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」 개최계획(안)

□ 일시 / 장소 : '16.7.15(금) 15:00~16:30 / 과천청사 4동 미래부 516호

□ 참석자

- 위원장 :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
-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(20명), 관계부처 담당자 등

□ 상정안건

- (1호)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(안)
- (2호)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 방향(안)

□ 진행계획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5:00~15:10 (10분)	▪ 개회 및 인사말씀	위원장
15:10~16:25 (75분)	▪ 안건 발표 - (1호) 「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(안)」 - (2호) 「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 방향(안)」 ▪ 토의	미래부
16:25~16:30 (5분)	▪ 폐 회	위원장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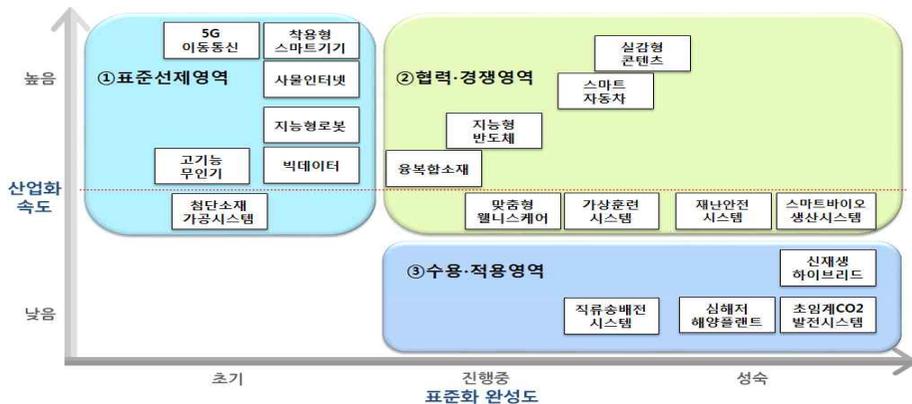
『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전략』 개요

I 추진 배경

- 표준은 R&D 결과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,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의 표준화 추진 필요
 - * 세계 교역의 80%가 표준의 영향(OECD), 표준은 GDP 성장률에 약 28.4% 기여(영국)
- 미래성장동력은 성장 잠재력과 시장과급력이 큰 분야로, 표준특허* 획득 등 표준화를 통한 **高부가가치 창출** 가능
 - * 표준특허(Standard Essential Patent):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, 수익 창출이 매우 용이한 고부가 가치 특허임
 - ※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나 관련 표준화 전략은 미흡
- 미래성장동력 분야 **표준화를 선도하고 조기 성과 창출**을 위해 관계 부처 간 **협력에 기반한 추진 전략 마련**

II 표준화 현황분석

- 산업화 속도와 표준 완성도를 종합하여, **3개 영역**으로 구분
 - * (산업화 속도) 기술역량, 성장잠재력 등 정량적 분석과 조기('20년) 성장동력화 가능성, 융복합 파급효과 등 정성적 검토를 종합·분석 (출처: '16년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)
 - * (표준 완성도) 핵심 기술 국제표준화 현황(출처: K-ICT표준화전략맵, R&D기반표준로드맵)



III 비전 및 전략

비전

2020년 미래성장동력 산업 글로벌 표준 선도

목표

국제표준 의장단

세계 3위권
(현재) ICT 3위, 非ICT 7위

표준특허 확보

세계 4위권(10%)
(현재) 5위 (6.4%)

표준 강소기업

20개
(현재) 7개 내외

전략

전략

추진과제 및 목표

R&D-표준-특허 연계 강화

- ◇ 산업별 표준화 로드맵 작성 ('17년, 전분야)
- ◇ R&D-표준 연계과제 비율 확대 ('15년 15% → '20년, 20%)
- ◇ 표준특허 창출 지원 확대 ('15년 15개 → '20년 30개)

맞춤형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강화

- ◇ 19대 분야 국제표준전문가 지원 확대 (ICT 분야: '16년 67명 → '20년, 100명)
- ◇ 핵심 분야 미러포럼 지원 확대 ('16년 3개 → '20년 9개)
- ◇ 표준화 단계별 밀착 표준특허 획득·대응 지원 ('15년 17개 → '20년 25개)
- ◇ 한중일, 아태지역 등 국제협력 강화

표준의 적시 보급 및 확산

- ◇ 국가표준 운영체계 확립 ('17년~, KS 이관 확대 및 운영체계 일원화)
- ◇ 중소·중견기업 표준화 및 표준특허 지원 강화 ('20년, 표준강소기업 20개)
- ◇ 성능시험 및 평가를 위한 틈새표준 발굴

IV 세부 추진방안

1 (표준 선제 영역) R&D-표준-특허 연계 강화

- R&D 기획시부터 표준화와 표준특허 창출 동시 추진을 위해, **실태조사와 중기표준화 로드맵 작성 확대** ('16년에는 17대 분야, '17년부터 전분야로 확대)
* 소수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2개 분야(신재생하이브리드·발전시스템)는 점진적으로 실시
- R&D-표준 연계과제 비율을 **'20년까지 20%로 확대**하고, **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(특허청)과 연계 확대** ('20년, 30개)

2 (협력·경쟁 영역) 맞춤형 국제표준화 전략 및 표준협력 추진

- ISO·IEC·ITU 등 공식표준화기구 내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, **한중일 및 아태지역 주변국과 국제표준협력 강화**
- 공식표준화기구와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간 균형적·전략적 대응을 위해 **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확대**('20년 100명) 및 **미러포럼 육성**('20년, 9개)

3 (수용·적용 영역) 표준의 적시 보급 및 확산

- 분야별로 관련 국제표준의 적시 상용화 등 시장확산을 위해, **국가표준의 소관 부처로 이관을 확대**하고, **국가표준 운영체계를 일원화**
- **중소·중견기업의 R&D 기술이 표준특허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후속 관리까지 밀착 지원**('20년, 표준강소기업 20개 육성)
- 시장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위한 **틈새표준화 추진**
* 틈새표준: 국제표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표준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킨 표준안 개발, 既 표준적용 제품·서비스의 성능시험·평가를 위한 추가 표준 제정 등

참고 3

『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하반기 추진 방향』 개요

I 추진 경과

- (실행계획 수립) 13대 분야 선정*('14.3) 후 실행계획 수립('14.6)
* 민간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분야 발굴
- 각 분야별로 R&D, 법·규제 개선,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 전략을 포함하는 **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**('14~'20년) 마련
※ 1단계('14~'15년) : 기술개발, 2단계('16~'17년) : 상용화, 3단계('18~'20년) : 산업육성

- (종합실천계획 마련)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(산업부)와 통합하여 19대로 확대·개편하고, '15년 **종합실천계획**(2015~2020)을 마련('15.4)
- **주력산업 경쟁력 강화**와 **신산업 창출**을 위해 **정부투자 효율화, 핵심기술 개발, 인프라 구축**을 중점 추진('20년까지 5.6조원 투자)

미래신산업	주력산업	공공복지·에너지산업	기반산업
① 지능형로봇	⑥ 스마트자동차	⑩ 맞춤형 웰니스케어	⑮ 융복합소재
② 착용형 스마트기기	⑦ 심해저 해양플랜트	⑪ 신재생 하이브리드	⑯ 지능형 반도체
③ 실감형콘텐츠	⑧ 5G 이동통신	⑫ 재난안전시스템	⑰ 사물인터넷
④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	⑨ 수직이착륙무인기	⑬ 직류송배전시스템	⑱ 빅데이터
⑤ 가상훈련시스템	-	⑭ 초소형 발전시스템	⑲ 첨단소재가공시스템

- ('16년 계획 수립) 투자전략 고도화,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, 국민체감도 제고 등 조기 성과창출에 중점('16.3)
- (투자전략 고도화) IoT, 스마트자동차 등 **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 선정** 등 지원전략을 차별화
※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상용화 R&D, 제도개선, 실증·시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,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추진로드맵을 차질 없이 뒷받침
- (민간참여 촉진) **세계 혜택, 금융 지원, 규제 개선**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**정책 지원 확대**
- (국민체감도 제고) 5G 시연, 무인기 물품배송 등 **실증사업을 적극 추진**하고, **챌린지퍼레이드, 오픈특릴레이** 등 **대국민 홍보 강화**
- (추진 체계 정비) 임기 종료에 따라 특위 및 추진단 재구성('16.5~6)

II 하반기 추진 방향

◆ 올 하반기는 정책 추진 중간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으로,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,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체계 고도화에 중점

1 민간참여 및 성과창출 지원

-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
 - (세제지원) 신성장동력 R&D 세액공제를 미래성장동력 등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, 세액공제 규모 확대*
 - * 중소 30%, 중견·대기업 20% → 최대 30%
 - ※ R&D 세액공제,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을 도출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('16. 하)
 - (금융지원) 신산업·신기술 정책자금(80조원) 지원을 위한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정책금융 공급 확대
 - ※ 신산업 업종·품목 등 기준을 마련('16.8월)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집행기준으로 활용
 - (규제개선)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등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, 지속적인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
 - ※ 규제 발굴 추진(8월~), 중간 상황 점검(10월), 규제 발굴·개선 특위 보고(12월)

□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강화

- (R&D)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산업화 진전 속도가 높은 분야의 '17년 투자 확대 추진
 - ※ 5G, IoT, 스마트자동차 등 사업화속도가 높은 10개 분야('16.3 선정)의 국과심 '17년 주요 R&D 예산 배분 조정·결과 : '17년 10,836억원(18.7% ↑)
- (실증) 자율주행 실험도시(화성), IoT 실증단지(대구·부산), 무인기 전용 공역(고흥 등 5곳), 로봇 실증단지(광주·포항) 등 인프라 구축 추진
- (표준화) '20년 미래성장동력 산업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'미래 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' 마련·추진('16.7)

2 추진 체계 내실화

- 기술·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정 검토
 -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('14년) 후 그간의 기술적·산업적 변화, 민간 수요 등을 고려, 신규 분야 추가 및 기존 분야 조정 등을 검토

□ 미래성장동력 주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

- 책임 부처가 복수인 분야*는 추진로드맵 이행을 위한 부처 간 의견 조율, 추진단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·운영(월 1회 이상)
 - * 스마트자동차, 지능형반도체, 융복합소재, 착용형스마트기기, 맞춤형웰니스케어, 고기능무인기
 - ※ 협의회 운영, 추진단 지원 등을 위한 간사부처 지정·운영
- 특별위원회, 책임 부처, 추진단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책임부처 협의회 등 주체 간 협업을 확대
 - ※ 추진단장 협의회,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회를 격월로 개최

3 정책의 실효성 확보

□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 마련

-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책이 일관성·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구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
 - ※ 미래성장동력 법적 근거 및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(9월~)
 - ※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(성장동력 발굴·육성)에 근거

□ 미래성장동력 인지도 제고

- (체험행사) 대국민 신기술 실증·시연 행사인 '챌린지퍼레이드' 개최
 - * 지능형로봇, 착용형스마트기기, 실감형콘텐츠 분야의 신기술 시연, 국민 체험, 미래 변화상 구현 등으로 구성(11.27, 12.4/코엑스앞)
- (정책포럼) 매월 '오픈특릴레이'를 개최하여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책 및 기술·산업 동향을 공유하고, 현장 의견 수렴
 - ※ <2월>무인기, <3월>스마트자동차, <4월>지능형로봇, <5월>착용형 스마트기기, <6월>실감형콘텐츠, <9월>5G, <10월>맞춤형웰니스케어, <11월>지능형 반도체
- (현장조사)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참여현황(투자, 고용 등),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, 기업 수요를 발굴
 - ※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 5,000개(표본) 대상 설문조사 추진(~10월)

참고 4

미래성장동력 그간 주요 추진 내용

◆ 기술개발 지원, 규제 개선, 세제 혜택,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천계획 중점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**미래성장동력 성과 창출 기반 확충**
 → 이를 토대로, **신제품 출시, 해외 수출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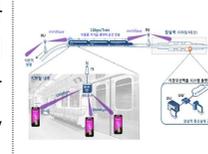
- (기술개발 및 상용화) 연간 약 1조원의 정부 R&D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
 - (실감형콘텐츠) 다면상영시스템 개발을 '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'로 선정('15.1)하여 R&D, 인력양성 등 지원
 - (착용형스마트기기) K-ICT 디바이스랩을 통해 스타트업,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

 <p>'스크린 X'를 개발, 태국('15.4), 중국('15.8) 등 수출 협약</p>	 <p>소음 제거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셋 개발('15.11), 크라우딩펀딩으로 75만 달러 모금</p>
<p>CJ CGV(실감형콘텐츠)</p>	<p>해보라(착용형스마트기기)</p>

- (규제개선) 스마트카, IoT 등 신기술·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 발굴(약 100여건)·개선하여 기업의 참여를 촉진
 - (고기능무인기) 드론 활용 사업 범위의 **Negative 방식 전환, 비행 승인 절차 완화, 시험비행 장소 확대**(수도권 4곳 추가) 등
 - (IoT) 비면허대역 주파수(900MHz) 출력기준 개선(10→200mW), 사물인터넷 사업자 허가 기준 완화,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의무 완화 등
 - (스마트자동차) 자율주행 임시운영 허가요건 완화, 자율주행 시험운영 구간 **Negative 방식 전환, 안전기준 개선** 등

 <p>세계 최초로 IoT 전용망 구축 및 상용화 추진</p>	 <p>임시운영에 대한 허가 획득('16.6), 자율주행기술 검증 예정</p>
<p>SK 텔레콤(IoT)</p>	<p>현대모비스(스마트자동차)</p>

- (실증·시범사업) 5G, 스마트자동차,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실증·시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- **챌린지퍼레이드**를 개최('15.11, 영동대교)하여, 대학 및 기업(현대자동차)의 **자율주행 기술 시연**(국내최초 실도로 시연)
 - **5G 시범서비스**를 ETRI 내('15.12), 지하철 8호선('16.1)에서 실증·시연

 <p>차선 유지, 보행자 인식 정지 차량 회피 등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에서 시연('15.11, 챌린지퍼레이드)</p>	 <p>지하철 8호선에서 5G 시범 서비스 시연('16.1) * 와이브로보다 100배 빠른 MHN 기술 시연</p>
<p>현대자동차 및 7개 대학(스마트자동차)</p>	<p>ETRI(5G)</p>

- (세제지원) 신성장동력 R&D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10개를 추가(65개→75개)하여, 민간 R&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
 - 대상 기술에 대해 R&D 투자액의 **30%**(중견·대기업 20%)를 세액공제

<R&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10개 기술>

분야	추가 기술
스마트카	· 클라우드 맵 기반 주행 상황인지 및 개방형 플러그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· 스마트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술
고기능무인기	· 무인항공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기술
지능형사물인터넷	· 지능형 사물인터넷 통합 플랫폼 기술 및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
착용형스마트기기	· 유연한 양·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·제조기술 · 섬유기반 유연전원(fabric based flexible battery) 제조 기술
융복합소재	·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(High Performance Plastics)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
맞춤형웰니스케어	·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
첨단소재가공시스템	·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·제조기술 · 난삭 메탈소재(티타늄, 인코넬 등)의 가공장비설계·제조기술

- (금융지원) 정책자금(80조원)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업에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, 가이드라인 마련, MoU 체결* 등 추진

* 정책금융협의회(산은 등 9개 기관)와 창조경제혁신센터, 출연연, R&D 지원 기관 MOU 체결('16.6.27)

참고 5**미래성장동력 책임 부처 현황**

19대 분야	책임 부처
① 5G 이동통신	미래부
② 스마트자동차	미래부, 산업부, 국토부
③ 실감형콘텐츠	미래부
④ 착용형스마트기기	미래부, 산업부
⑤ 지능형사물인터넷	미래부
⑥ 지능형반도체	미래부, 산업부
⑦ 고기능무인기	미래부, 산업부, 국토부
⑧ 지능형로봇	산업부
⑨ 빅데이터	미래부
⑩ 융복합소재	미래부, 산업부
⑪ 심해저해양플랜트	산업부
⑫ 가상훈련시스템	산업부
⑬ 맞춤형웰니스케어	미래부, 산업부
⑭ 스마트바이오생산	산업부
⑮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	산업부
⑯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	안전처
⑰ 직류송배전	산업부
⑱ 초임계CO ₂ 발전	산업부
⑲ 첨단소재가공시스템	산업부